

“류현진 응원하듯 ‘나’를 격려하자”

지난 5일 오후 조선대 해오름관에 모인 1000여명의 청중들은 불 꺼진 무대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은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다. 잠시 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검은 벨벳 속 자그마한 눈빛을 빛내며 등장한 남자는 곧바로 무대에서 내려와 청중과 눈높이를 맞춰 인사했다.

“뭐 하고 놀까요?”
최근 ‘주(酒)립대학’ 총장이 된 개그맨 김제동(41)은 이날 광주를 찾아 익살스런 표정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1000명이 넘는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보해양조는 최근 신제품 소주 ‘아홉시반’ 출시를 기념해 ‘술자리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구호를 내세운 사이버 대학 ‘보해 아홉시반 주(酒)립대학’을 개교했다. 바람직한 술자리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주립대학은 제1대 총장으로 개그맨 김제동을, 홍보대사로 배우 한기인을 임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진중급 교수, 하재욱 작가 등이 교수진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강의를 홈페이지(www.ahsvuniv.org)에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날 강연은 김제동 총장이 개교를 기념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진짜 이야기 by 김제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정해진 수업시간도, 원고도 없었다. 현장에서 청중들이 질문하면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나”는 마수걸이 질문에는 씩씩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한 그는 질문을 한 학생을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고민을 해결해줄 능력도 없고,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외롭고 아픈 청년’임을 강조하면서도 남녀의 차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 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며 세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이네요. 세 시간 동안 통화하고, 자제할 이야기하는 만나서 하자는 여성을 남자는 이해



할 수 없어요. 매사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남성과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서로 달라요. 남녀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남녀 심리를 잘 아는 분이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라고 던진 질문이 이어지자, 청중들은 공감과 위로를 담은 박수를 보냈다. 다리가 풀린 듯 무대에 걸터앉아 애써 웃어보이는 그는 잠시 호

흡을 가다듬고 말했다.
“성공은 가장 멍청한 스승이라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만, 실패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모든 것을 알려줘요. 수없이 실패했던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약이 될 거예요. 저는 연애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사회에서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듯이, 연애를 하는데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고백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상대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해요.”

남녀관계에 대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말했다. 고백을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고통이 남을 뿐이지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면 연애에 성공할 가능성은 50%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백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므로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는 학생을 향해서는 익살스런 답변보다는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며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귀 기울여주는 문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탓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개선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기도 했다.

아직도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들을 언급하면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는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라고 당부했다.

두 시간 동안 청중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은 그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역설했다. 남의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버려내는 게 아닌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했다.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세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예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는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면서 정작 자신을 진정하고 아끼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공부하고 일하느라 하루 종일 지친 자신에게 잠들기 전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김연아 선수나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분들이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 격려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타인에게 쏟을 감정을 본인에게 투자하세요.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별세... 생존자 54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가 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경기도 광주시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은 배 할머니가 오전 5시께 나눔의 집에서 노환으로 운명했다고 밝혔다.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배 할머니는 19살 때 절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정신대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중국 만주로 끌려갔다. 배 할머니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어김없이 참석했지만 3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해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부터 거동이 불편

해지면서 침상에서 누워 생활해왔다. 고인의 빈소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자영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10일 오전 나눔의 집 장(殯)으로 엄수된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하루속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가 이뤄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평생의 한을 풀고 마음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4명(국내 49명, 해외 5명)으로 줄었다. 나눔의 집에는 생존자 중 9명이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치과의사회, ‘치아의 날’ 구강캠페인 열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열)가 8일 광주 중심사 지구관리사무소 일대에서 광주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조선대치과병원, 광주보건대·서영대·송원대·광주여대·호남대 치과위생과 후원으로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69회 치아의 날’을 맞아 올해 아홉번째 열리는 것으로 ‘식사전 손 씻고, 식사후 칫솔질’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시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과계와 광주 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50여 명이 함께 나섰다.

또 구강보건관련 교육자료 전시와 치과 이동버스를 이용한 무료 치과진료, 구강

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칫솔질 방법(TBI)), 구취측정, 위상차원미경 검사(구강내 세균검사), 치과의료보험관련 홍보물과 구강용품세트(칫솔, 치약)를 무료로 배부하고 사용법을 홍보하는 등 구강보건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진행됐다.

박정열 회장은 “시민구강보건의 증진과 계몽을 통해 시민들에게 치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생활화하고 보람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장애인재활센터 소화원서 재능기부

광주환경공단 노·사는 지난 7일 광주시 남구 병선동 장애인재활센터 소화원을 찾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단 전기전문 기술직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직원들은 소화원의 친환경 비누생산 설비인 교반기 제어장치를 손보고 건물 곳곳에 형광등을 달아 주기도 했다.

공단의 노·사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기존 환경정비 위주의 봉사활동에서 벗어

나, 자체 기술직렬 직원들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광주환경공단 노동조합 임재범 위원장은 “공단이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함으로써 종전보다 현실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 ▲차기운(전 광주경찰서)-김옥덕(유니베라 남양알로에 대표)씨 장남 병훈군 김중환(유동업)-신금순씨 장녀 지영양=14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지하철 농성역 앞)
- ▲이동연·윤현욱씨 장남 상진군 조광홍(전 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장)·장숙희씨 막내 지희양=15일(일) 낮 1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롯데마트 상무점 맞은편)

종친회

-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자문회의=12일(목) 오후 5시 진주 강씨 회관 3층 회의실 010-2378-0070

알림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폰 사용법 관련 공개강좌=11일(수) 오후 2시 30분~4시 30분 광주 북구 우산동 꿈

나무사회복지관 강당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062-267-4800.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제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오지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중·고등학생부·대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평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 ▲광주향교·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림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 ▲2014년 시민 학생 인문강좌(수신제 가치국평천하)=과목은 논어(論語) 대학(大學),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광주 YMCA 2층 율안(국민 누구나 수강가능) 010-3625-5433.
- ▲광주불교교육원 2014년도 불교문화대학 신입생=교육대상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1년 과정), 강의 시간은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월 1회 불교문화 현장학습 실시 062-228-9098.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

- 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 하신 분 062-233-0468.
-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주일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 ▲광주여성성하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 단원=클래식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예

- 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정장길 님(남/91세) 子/子婦: 정광국/김정숙, 김남/이민숙 女/婿: 정미경/이동국, 영선/김정수 未亡人: 이정순 *호 실: 201호 *발 인: 6월 10일 *장 지: 영암군서선영 *연락처: 227-4381	402호 故이연석 님(남/75세) 子/子婦: 이항선/고영희, 민호/나선주 女/婿: 이영선/김종희, 현선 *호 실: 402호 *발 인: 6월 1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故허만홍 님(남/72세) 子/子婦: 허용환/한진주, 광민/임금희 女/婿: 허유선/유상민 未亡人: 김복순 *호 실: 101호 *발 인: 6월 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남민아 님(여/64세) 子/子婦: 최상기/김정순, 상희/이선희 女/婿: 최유선/김하성 夫君: 최대성 *호 실: 102호 *발 인: 6월 10일 *장 지: 최순도곡선영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